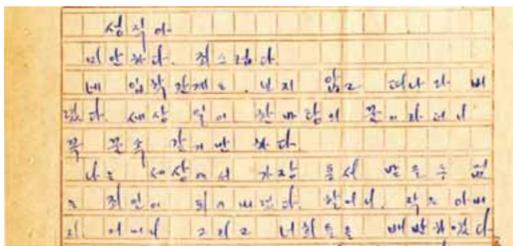


# “불쌍한 우리 어머니의 아들 노릇 내가 해 다오”



법정스님이 사촌동생에게 보낸 친필편지(위). ‘청년에서 승려로 나아가는 길목의 편지’에는 고통과 고뇌, 희열과 깨달음이 담겨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책읽는 섬 제공>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마음에 따르지 말고~**

법정 글, 박성직 엮음

“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고 있을 때는 감사와 환희로 충만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괴로워한다. 자기 몫의 생을 아무렇게나 낭비해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상이 안이해지거나 무력해질 때, 이게 아닌데 싶으면 지냈던 것을 선택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 책을 정리해 흠여 버리고 옷가지들 나누어서 털어 버린다. 그리고 범속한 관계들에 가지치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도 성에 차지 않으면 훌쩍 떠나 버린다.”(“출가”에서)

지난 13일은 ‘무소유’ 법정스님(1932~2010)의 입적 8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서울 김상사는 고인의 뜻에 따라 추모법회를 소박하게 치렀다.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 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

법정스님 출가 전 사촌 동생에 보내는 50여통 편지

시대의 명작 ‘무소유’가 탄생하게 된 뒷이야기

고통과 고뇌, 희열과 깨달음의 흔적 고스란히

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라”는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이었다. 입적 8주기를 즈음해 법정스님의 산중편지를 묶은 책이 발간됐다.

고인의 사촌동생인 박성직 씨가 엮은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청년 박재철에서 승려 법정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편지들”이다. 고통과 고뇌, 희열과 깨달음의 흔적들은 여전히 울림으로 다가온다. 책은 2011년 발행된 ‘마음하는 아우야’를 재출간한 것으로, 출가 당시 법정의 소회와 잔잔한 에세이 등이 덧붙여져 있다.

박성직은 어린 시절 한집에서 법정과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박재철(법정)은 작은아버지 덕에서 공부하며 자랐다. 작은아버지는 영민했던 박재철을 대학까지 보냈다. 작은아버지에게 박재철은 조카가 아닌 ‘큰아들’이었다. 친자식도 아닌 그를 대학 공부까지 시킨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6·25전쟁이 끝난 시기였다.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동족이 동족을 살상하는 참상을 목격한 청년 박재철의 내면에는 또 다른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다.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와 삶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다. 몇 날 며칠 불면의 밤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던 중 그는 홀연히 집을 떠났다. 집안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었던 가족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다(당시 박재철은 전남대 상과대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 통의 편지가 사촌동생 박성직에게 도착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내가 대신 해 다오.”

중학생이었던 사촌동생은 형의 편지에 담긴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이 귀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불자(佛子)가 아니었던 박재철은 왜 승려가 되었을까. 사촌동생이 들려주는 일화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승복을 입을 기회가 있었는데 매우 좋아하더라는 거였다. 마치 몸과 마음에 딱 맞는 자리를 찾은 것처럼 말이다.

출가를 한 박재철은 이후 고승 효봉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불제자의 길을 걷는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사촌동생에게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다. 그 시기에 보내온 편지에는 피

불이의 정을 끊어 내려는 모진 마음이 깃들 어 있다.

‘법정’이라는 불명을 받으면서 그의 편지는 이전과 달라진다. 불가에 귀의한 수도승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거짓 없이 너에게 말하며. 형이는 금생뿐이 아니고 세세생생(世生生) 수도승이 되어 생사해탈(生死解脱)의 무상도(無上道)를 이루리라. 하여, 고통 바다에서 해매는 내 이웃을 건지리라 다.”(1959년 3월 10일)

이처럼 법정이 보냈던 편지에는 청년이 승려로 거듭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1976년 출간된 역사 ‘무소유’의 소재가 되는 사연과 깨달음도 군데군데 소개돼 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상징이 고난을 겪는 사람은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인생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서 자신이 생기고 또한 생활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체 nghiệm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책읽는 섬·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악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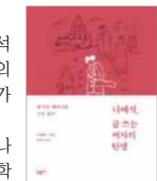
**장영은 엮음 ‘나해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여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소설가이자 화가, 독립운동가이며 페미니스트였던 나해석(1896~1948)의 절구다.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했지만 최린과의 연애 사건이 문제가 돼 이혼을 한다. 이혼 후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서도 나해석은 그림과 글을 놓지 않았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00년을 앞서갔던 페미니스트 나해석의 아름다운 투쟁을 담은 선집이 출간됐다. 성군관대 한국학 연계전공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장영은 박사가 엮은 ‘나해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은 나해석의 삶을 나해석의 글로 읽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상대자의 불행행을 놓칠진대 자기 자신이 정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나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놓고 차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제도도 제도 러니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 마치 어린애들 장난 모양으로 너 그 러니 나도 이러겠다는 행동에 지나지 아니했사이다.”

나해석이 쓴 ‘이혼 고백장’은 자신의 생애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에서 놀 랍고 대단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은밀하고 사적인 취미’가 아니 었다. 나해석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여성들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와 싸웠다. 5부로 구성된 책에는 소설, 논설, 수필, 인터뷰, 대 답 등이 수록돼 있다. 여성 지식인으로서 봉건적 가부장제와 인습에 맞서 싸워야 했 던 나해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각 부의 말미에는 나해석과 함께 이광수, 김기진, 김억 등 네명의 문인이 당시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늦게하는 풍조를 비평하는 ‘만혼 타계 좌담회’가 실려 있다.



<민음사·1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승우 지음 ‘MB의 재산 은닉 기술’**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혐의를 부인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지만 MB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안타깝게도 보도도 접하지는 이명박 재산의 실체는 산발적이라 한눈에 알기도 어려웠다.

이명박 재산을 탐사보도한 책이 출간됐다. 현직 MBC 기자 백승우가 편낸 ‘MB의 재산 은닉 기술’은 BBK주가지조작 연루, 도곡동 땅 차명, 다스 실소유주, 내곡동 사저 등 이명박에 관한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한 취재기다. 무엇보다 지상파 뉴스에서 보도하지 못한 이명박 X파일이 수록돼 있어 흥미를 끈다.

첫 번째 열쇠는 돈이다. 저자는 MB가 공직에 있을 때 국회공보, 서울시보, 관보 등 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한다.

두 번째 열쇠는 땅이다. 저자는 이 의혹이 이명박 아들이 사들인 서울 내곡동 땅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도곡동 땅은 이상근과 김재정이 함께 사들여 10년 새 200억 넘 는 수익을 올린 땅이다. 그 돈이 다스의 자본금으로도 들어갔으니 다스의 뿌리가 된 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일었던 땅이다.”

세 번째 열쇠는 다름 아닌 다스다. 사실상 이번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저자는 이전에 이시형이 다스의 핵심 자리를 꿰찬 것은 이명 박의 입김 때문이라고 본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등록 시 가환을 ‘정직’이라고 썼다. 저자는 이명박이 정직하 지 않다면 그는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 자신의 공간을 두둑이 채운 것이라고 단언 한다.



<다산지식하우스·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니 레인 외 지음, 고현석 옮김 ‘지구 밖 생명을 묻는다’**

20세기 과학계의 가장 중 한 명인 엔리코 페르미는 “다들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 간단한 질문은 외계 생명체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우리는 뉴스, 영화, 소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외계 인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외계인’의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들 눈에 익숙한 ‘외계인’과 실제 과학자들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외계생 명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가 지구 너머의 생명체를 찾기 위 해 오랜 시간 지식을 축적해왔다. 이론물리학자이자 우주생물학자인 니 레인 외 퍼낸 ‘지구 밖 생명을 묻는다’는 심리학과 물리학, 신경과학, 우주생물학 등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다양한 의문들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먼저, 우주학자인 마틴 리스는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주제로, 언젠가 먼 미래 에 우리 자신이 우주의 ‘외계인’이 될 가능성을 예측한다. 우주생물학자 루이스 닥트 넬은 외계인 침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인지 조명한다.

인지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전문가인 아닐 세스가 외계 지능과 우리의 지능이 어떻 게 다른지를 연구하며, 심리학자인 크리스 프랜치는 외계 생명체와의 근접조우가 심 리학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고든다. 이밖에 유명한 수학자 이언 스투어트 가 상상력이 만들어진 외계 생명체 모습 일부를 소개하고 생화학자 니 게인은 지구 생명체 기원에 대해 살펴본다.



<반니·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